

# 이달의 動靜

■ 남상도씨(전북지부 사무국장)…평소 시간의 관념을 무시할 정도로 묵묵히 일하고 있는 남구장이 요즘은

88년도 건강관리도비사업을 증가시키기 위해 분주한 로비활동을 펴고 있다.

13개 시도지부에서 가장 알차고 탄탄한 기반을 다진 전북지부의 88년도 건강관리사업의 청사진이 자못 궁금.

■ 본부 및 서울시지부(축구팀)…85년도 보건단체 축구시합에서 우승경력이 있는 축구팀이 요즘은 연일 승전보를 알려주고 있어 흐뭇한 상태. 지난날 4월 11일 강서지점 상업은행축구팀과 2:1로, 5월 16일 서울 제15지구의료보험조합과의 경기에서는 4:1로 낙승 관내 여러 축구팀으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있다.

기본적인 양심상 1골씩은 먹었다는 축구팀원 끊임없는 도전장에 “얼마든지”라는 느긋한 상태.

■ 한상진씨(본부기획부장)…업무개선 및 실질적인 업무편의를 위한 문서관리 요령업무지침책자를 새로이 제작 각 시도지부에 배포하여 각광을 받고 있다.

많은 업무량에 대한 실무자들의 정확한 행정업무에 지침서로 활용될 이번 책자에 대해 한부장은 전직원들이 완전 숙지하도록 당부 한다.

■ 이종남씨(본부사업 계장)……평소 유모어로 한자리 분위기를 주름잡는데 앞서는 이계장이 자못 싱글 병글.

지난번의 큰딸의 국교 졸업과, 이번에는 창립기념일에 모범근무자로 표창을 받아 선택된 자신인양(…) 기쁜 표정.

■ 최중삼씨(본부사업부주임)……지난달 3박4일 코-스로 감사실 이혜진양과 같이 레크레이션 교육을 마치고 돌아온 그는 하루차이로 춘계체련대회에 참석치 못하여 배운 기량을 마음껏 발휘치 못해 못내 아쉬운 표정……기량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발표할 기회가 있으니 너무 섭섭해 하시지 말기를.

■ 박광우씨(본부기획과장)……유난히 남보다 큰키에 흰한 이마가 듯보이는 박과장이 봄을 타는 것인지, 무슨 좋은 일이 있는지 싱글 병글이다.

사연인즉, 본부 공제회장으로 발탁되고난 후 직원들의 경조사 사령관이 되고부터라는 것.

직원들의 복리후생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져 기쁘다는 그의 얘기에 고개가 숙여진다.

■ 박경순씨(전남지부 서무주임)……○○인형씨리즈1번(?) 처럼 야담하고 귀여운 그녀가 지난 4월 19일 오후1시 회사원 김경근씨와 전남광주 반도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앞으로의 결혼생활에서 강인하게 살아가야 할 그녀의 앞날에 행운과 행복만이 가득차기를 기원한다.

■ 권대득씨(서울지부기사)……평소 90kg이상의 거구를 가진 권대득씨가 5월 16일 오후 1시 점촌 나하나예식장에서 김금숙양과 결혼식을 올렸다.

새로운 각오로 생활을 하여야 할 권대득씨의 가정에 행복이 만발하기를 기원한다.